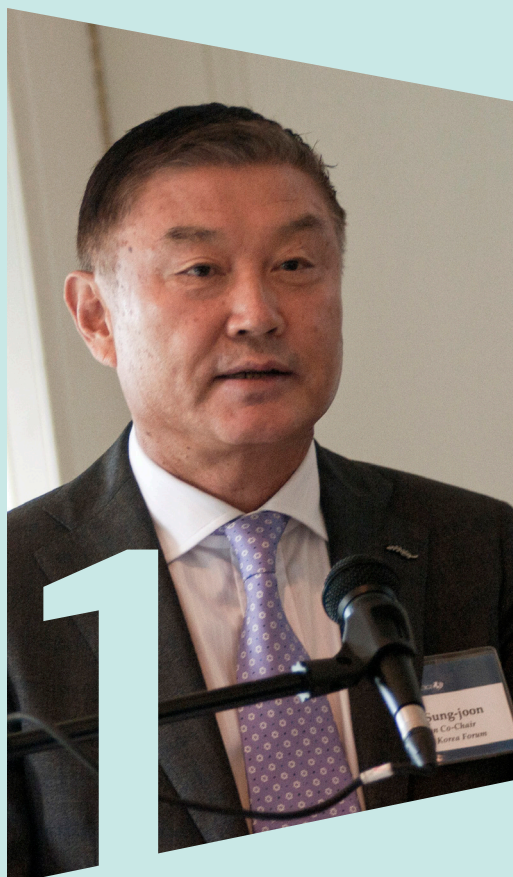

KOREA-CANADA FORUM 2015

제13차 한국-캐나다 포럼 결과 보고서

Innovation and the New Canada Korea Partnership



Overall Summary

종합 보고

제 13차 한국-캐나다 포럼은 2015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랭던홀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 4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KFTA)의 초기 영향,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 등 양국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양국이 CKFTA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진취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CKFTA의 활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되며, 새로 창출된 기회를 열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적인 거래기반의 양국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초석이 되어 양자 관계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국제적 영향력과 경제적 규모 등에 있어 공통점이 많으며, 지역 질서 및 국제 안보에 관한 공동된 시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가치 향상에 있어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와 대중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포럼의 각 세부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제 1 주제: 경제, 에너지, 및 중소기업

제 1 세션: 한국-캐나다 FTA 전망과 과제

2015년 1월에 CK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를 감안했을 때 놀랍지 않은 추세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FTA의 출발 단계에서 정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기업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포럼은 FTA의 활용 면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양국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 이상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나 자원 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CKFTA로 인해 더욱 심화된 가치 사슬에 접근하고 증대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선별적인 도움,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 2 세션: 청정 기술, 에너지, 기후 변화

제 2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청정 기술, 에너지, 그리고 기후 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파리에서 진행될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에 동

의했다. 특히 에너지 협력은 한국-캐나다의 기후 변화 대비 협력 분야 중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이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국제 유가 하락, 캐나다의 천연가스 운송문제, 그리고 미국의 셰일 가스 혁명 등으로 인해 고전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화석 연료와 관련된 협력의 여지도 많이 남아있지만, 캐나다의 청정 기술 개발 계획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정 기술이 양국의 경제 관계에 유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세션의 참석자들은 한국과 캐나다가 청정기술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 세션: 농업과 식량안보

제 3 세션에서는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CKFTA 체결 이후 캐나다는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협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캐나다 측은 자국 상품이 지속 가능한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청결한 농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는 단순 무역을 능가하는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매우 시기 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무역(two-way trade)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상호 무역을 넘어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중국과 여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산업 허브(hub)가 한국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제 2 주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 4 세션: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안보 과제와 한국-캐나다 협력

한국과 캐나다는 국제 질서의 안정이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중견국으로서의 역량, 경험 그리고 해안을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한 더 폭 넓은 협력이 요구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양 측은 본 포럼의 2014년도 제언을 기반으로 한 외교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2+2'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캐나다 측은 자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가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Trust-politik'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캐나다는 비록 현재 북한에 대해 노딜(no-deal)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통일이 될 경우 캐나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태 지역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중견국가(tier two)인 한국과 캐나다는 강대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제 5 세션: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한국과 캐나다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분야에서 양국의 더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G20회원 국가인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은 2010년부터 이미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예로 들며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 측 참가자들은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 무역 시스템의 역할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 및 지역 FTA로 인해 경쟁적인 무역 블록이 많이 체결됨에 따라서 무역 다자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양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양 측 참가자들은 캐나다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했다.

거버넌스 혁신 측면에서 북극은 양국의 협력 가능 분야로 새로이 대두되었다. 또한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사이버 첩보활동, 사이버 안보의 관할권 문제, 그리고 인터넷상의 범법 행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제 3 주제: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

제 6 세션: 21세기 차세대 협력의 강화: 교육, 문화, 기업 및 과학

이 세션에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청년들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필수 구성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의 참여 없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 연계가 중요한 협력 분야로 지적되었다. 많은 캐나다 인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비해서 한국으로 오는 캐나다 유학생의 수는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제공되는 장학금이나, 복수 학위 프로그램, 대학이나 기술 학교의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들이 캐나다 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부 지원 여행,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기업 주도의 청년 활성화 방안의 개발, 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의, 문화와 스포츠 교환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특히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방안들이 요구된다.

제 4 주제: 장기적 협력관계를 위한 혁신 전략

제 7 세션: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마지막 세션에서는 앞선 세션들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외의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태 지역의 해군 협력, 개발 협력, 노령화 사회 대처를 위한 사회적 및 경제적 논의, ICT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거론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CKFTA가 발효되었을 당시 양국이 구상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국-캐나다 포럼이 CKFTA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고, 그 관점과 제안들을 정부와 기업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13th meeting of the Canada Korea Forum (CKF) took place from September 17 to 19 at Langdon Hall near Waterloo, Ontario.

The timing coincided with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ignature in Ottawa on September 22, 2014 of the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 during the State Visit by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accompanying announcement by President Park and Prime Minister Harper that the Canada-Korea relationship would be elevated to that of a "Strategic Partnership."

These two milestones set new and high expectations - that a new chapter of significant growth in our economic ties would be accompanied by a major deepening of relations and collaboration across the board.

The 40 or so participants at the 13th Forum used the meeting to take stock of the CKFTA's early impact, to consider what the no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should mean for the road ahead, and to seek innovative ideas for driving the relationship forward.

THE FUTURE OF ECONOMIC PARTNERSHIP

Among the main conclusions reached at the Forum, one in particular stands out.

Taking Korea Canada relations to the ambitious new levels set by the Canada-Korea FTA and the new Strategic Partnership depends primarily on energetic and proactive approaches by business and government, inspired by innovative ideas and approaches and driven by leadership of key individuals, firms and institutions.

The Forum warned that we must not let complacency take charge of our efforts to implement the CKFTA or the broader Strategic Partnership.

In these early days of the CKFTA, governments nee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quickly and put in place advocacy and promotional efforts about the openings created. In the end, however, the success of the CKFTA will depend on the energy, skill and commitment that businesses on both sides bring to bear in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have been created.

Achiev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represents a particular challenge. The relationship must move from its current transactional and episodic state to one that is embedded in each other's international priorities and is viewed holistically. Korea and Canada have agreed that they should be among each other's top tier of global partners, after the major powers. It is a statement of high ambition.

Forum participants noted that the Partnership required our countries now to move “to the next level” in terms of the depth and strength of our bilateral ties - commercially, politically and in the various people-to-people dimensions.

Internationally, Korea and Canada share similarities in terms of global power, economic weight and position, and a deep commitment to democracy and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e both strive to promote a peaceful, prosperous and stable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Habits and mechanisms of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Finally, the Forum noted the importance of awareness building and public diplomacy in both countries as to the value of our strategic partnership. Over time, an intangible “chemistry” needs to be developed in order to pull us together naturally.

Efforts to advocate the opportunities under the CKFTA could be gradually expanded to emphasize the broader themes, commonalities and potentials across the relationship, building on the important cultural and historical connection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Korea as Seoul repositions Korea as regards its relations with the USA and China.

INNOVATIONS

The following were among the most innovative ideas to emerge from discussions at the Forum:

- *Governments could take the lead in organizing a coordinated back-to-back “Year of Canada in Korea” and “Year of Korea in Canada”;*
- *Canadian and Korean food industry businesses could establish a hub in Korea to serve the Asian market;*
- *The clean technology sector represents a high potential focus for commercial relations and can also act as a bridge builder in bringing mo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irectly into the commercial relationship;*
- *It would be timely to create a national Canada-Korea Business Cooperation Council led by a major business leader from each side with the support of leading business organizations;*
-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2 Plus 2” mechanism for annual meetings among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also a 2014 Forum recommendation);*
- *On international governance, our countries could provide joint leadership in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a normative framework around the jurisdiction and the core responsibilities of states in the area of cyber-espionage;*
- *A program of cooperation on Arctic affairs would respond to a strong Korean interest in an area of Canadian strength;*

-
- *Governments and business could collaborate in setting up a “Next Generation Leaders Initiative” to facilitate and inspire long term networks among young Koreans and Canadians;*

These and other conclusions that come out of the subject-specific sessions are set out in the following paragraphs.

ECONOMY, ENERGY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1. Progress and Potential Post-FTA

Since coming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the CKFTA has seen an overall drop in bilateral trade. Thi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continued weakness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time needed for businesses to begin capitalizing on the new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re have been a few areas of growth, with lesser declines in trade in other areas benefiting from improved terms of access under the FTA.

The Forum agreed that primary leadership rests with governments in the critical “launch” phase of the FTA. They need to inform and encourage businesses - large and small - to explore the new opportunities, to raise advocacy efforts in the market, to put in place complementary sectorial initiatives and agreements (for instance, negotiations on a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have recently been concluded) and to pursue a full court press of 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missions. Some of this is now underway, but much more is necessary, sustained over an extended 2 to 3 year period.

The Forum discussed the particular challenges that fac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MEs) in accessing international opportunities. Although they tend to be more innovative than larger companies, their limited size and reach are disadvantages that have to be overcome with targeted government help through association with larger successful companies if they are to access complex value chains and reap the rewards available through the CKFTA.

The next generation of growth Canada Korea business will depend on its being tied in directly with the “new” economy world of innovation, integrated regional and global value chains, services trade of all kinds, the use of the digital econom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nnectivity.

2. Clean Technologies, Energy and Climate Change:

The Forum discussed the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this area against the background of global developments. The Forum concluded that the upcoming COP21 meeting in Paris represented the best opportunity yet for arriving at an agreement. Climate change is seen increasingly as the largest economic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Businesses are seeing major challenges but also economic opportunities.

The highly promising Korea-Canada relationship in the energy sector, including Korean investment, has been negatively affected by the impact of falling petroleum prices, the inability of Canada to move natural gas to tidewater for export to a needy market,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US shale option. The Forum concluded that while there is still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conventional fossil fuels, new opportunities are opening up as Canada tries to find ways to make oil sands production “cleaner” while moving to cleaner technologies as an energy dependent country. Korea is also aggressively seeking to reduce its carbon footprint, adopt alternative energy sources and use sustainable technologies in meeting its energy security requirements.

The Forum identified the area of “clean technologies” as having particularly high potential for commercial relationships. Korea is now a net importer in this sector and its clean technology trade in imports and exports equals 4% of GDP. Canada’s percentage is less than 1% but growing. It is also a sector with a high proportion of SMEs, and one where “disruptive” technologies can emerge even before a market exists for it.

The Forum concluded that both countries should prioritize the “clean technology” area for special efforts over the coming period, combining this sector with efforts to engage SME’s, who are particularly active in developing these technologies, more directly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3.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e Forum noted that there was much room for increased trade and coopera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CKFTA, although for some years Canada would be playing “catch up” with the USA and other competitors in the Korean market.

Aggressive promotional efforts and selling the “healthy” and “sustainable” nature of Canadian agriculture and its products (such as canola oil, grains and meat products) would be the key.

It was also thought that the timing was now right to develop the “food security” relationship beyond mainly trade in commodities. This should at a minimum include more two-way trade in processed food products. More innovatively, it could involve food sector investments in both directions, the adoption in Korea of Canadian agricultural innovations, and business arrangements between Canadian and Korean firms to establish a “food industry” hub in Korea for supplying China and other Asian markets.

INNOVATIVE PARTNERSHIPS IN BUILDING A BETTER WORLD

1.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The Forum believes that given their common interests in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their capacities as leading “middle powers”, Korea and Canada should use their new Strategic Partnership to cooperate more on regional security issues, but also on global matters, each drawing on its strengths, experience, and insights.

In this respect, Canadian and Korean governments should follow up on the Forum’s 2014 recommendation that they establish a “2 Plus 2” mechanism among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Canada would welcome Korea’s support in its desire to be admitted to the ASEAN-centered East Asia Summit and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Plus) group.

North Korea represents the main security and foreign policy challenge for the Republic of Korea. Seoul continues greatly to appreciate Ottawa’s support especially for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with the North. Forum participants thought there could be more of a Canadian role generally including in eventual reunification efforts, although Ottawa’s policy of no-dealings with Pyongyang has limited Canada’s potential for a more active engagement.

With the return of global power rivalries in the region, there are openings for Tier Two powers like Korea and Canada to work together to encourage responsible behaviors, including through Track 1.5 and 2 initiatives.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can also be developed, although the absence of an articulated forward defense strategy for the Asia-Pacific is currently a weak point. Globally, our countries would make good partners in areas of conflict prevention and modern day peacekeeping operations.

2. Global Governance

Regarding security matters, the Strategic Partnership should open the door to much deeper cooperation in the area of global governance. The Forum noted that as G20 members, there has already been some leadership cooperation going back to the 2010 G20 Summits in Canada and Korea. This can and should be built upon.

For example, the Forum discussed the continuing weaknesses in such 20th century institutions as the United Nations, IMF and World Bank, where reforms are needed or have been mandated but not implemented. The role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can be further expanded.

As two major trading nations whose prosperity rests on international commerce, Korea and Canada could do more together to re-assert the rol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rough the WTO, and to ensure that bilateral and regional FTA’s do not result in competing trading blocs or undermine a return to multilateralism. Canada should support Korea’s early accession 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One new and innovative area highlighted for collaboration was the Arctic.

Finally, Koreans and Canadians are already participating in Track 2 work on the complex area of global Internet governance, where significant gaps exist especially in the area of cyber-espionage, jurisdictional competencies and rules, and illegal activities on the net. The Forum thought that one area of potential cooperation could be that of jurisdiction and the core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establishing a normative framework around cyber-espionage.

ENGAGING YOUTH AND NEXT GENERATION LEADERS

The Forum concluded that young Canadians and Koreans hold the key to the future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out a significant up scaling in the engagement of youth the foundation for a successful Strategic Partnership would remain weak and its longevity uncertain.

Educational linkages are seen as the centerpiece. While significant numbers of Canadians teach English in Korea and Canada welcomes large numbers of Korean students, more Canadians should be studying in Korea. Unfortunately, Canadians are much less likely than those from other developed states to study abroad. Therefore, much more promotion in Canada, two-way scholarships, dual degree programs and increased university and technical college exchange arrangements are both necessary and overdue.

In addition, youth engagement should be fostered deliberately and strategically across the board through, for example, expanded government-facilitated and sponsored travel and working holiday programs, adding specific youth-focused elements to business, scientific and other meetings, and organizing more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Leadership (particularly by governments) and thinking outside the box will be necessary but will pay substantial long-term dividends.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Relations

While the Forum discussed the broad state of play and the need for strategies and stepped up performance across the board – as described in the Overall Conclusions above – several specific areas were identified for possible future cooperation. Most of those have been noted above. Other ideas included:

- bilateral nav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together in countries such as Myanmar)
- discu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of dealing with aging societies
- more technology tie-ups in the area of ICT

In sum, the Forum concluded that there was a rich menu of possible areas of collaboration that, with leadership and energy, could lead to more intense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at our Leaders had in mind when they launched the CKFTA and Strategic Partnership in September 2014.

In this environment, participants believes that the Forum should, more than ever, continue to play its role in promoting progress, finding new avenues for collaboration, and making its views and recommendations known to governments, business and other stakeholders.



Session Summaries

세션별 요약

제 1 주제 **경제, 에너지 및 중소기업**

제 1 세션:

한국-캐나다 FTA 전망과 과제

한국-캐나다 FTA는 아직 발효 기간이 짧았고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아직 주목할만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이후 7월까지 전년 대비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은 6%, 수입은 21%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타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교역상황을 보면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관세 인하 품목들과 비 인하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관세인하 품목들의 교역 축소가 적게 나타나는 바, FTA가 양국간 교역을 지탱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과거 체결한 FTA 경험을 보면 대부분 FTA에 의한 무역효과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국-호주 FTA의 경우에 일본-호주 FTA가 직후에 체결되면서 무역효과가 급속히 상쇄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간 FTA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역활성화에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한국-캐나다 FTA에 의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여타 FTA들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쇠고기 수출 등 농업부문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양국의 시장개방 합의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으로 한국이 캐나다 수입에 대한 관세의 87%를 즉시 철폐하고 대부분의 관세들이 3년내에 철폐되는 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캐나다 FTA가 여타 FTA들에 비해 자연인 이동에 대한 합의 부분이 광범위한데, 상용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 주재원, 전문가, 배우자의 일시 입국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양국간 인력이동의 중요성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훨씬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생산물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에 논의할 예정이나, 위원회에서의 요건은 한-미 FTA보다 다소 유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FTA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화협력 사안인데, 특히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자국 문화산업보호에 특별한 정책적 비중을 두는 캐나다 정부와 최근 한류 확산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의 이해가 합치하는 부분인 바, 향후 협력부문의 확대 및 문화교류 심화·발전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캐나다 FTA는 조만간 TPP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사실상 흡수되어 독자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얼마 남지 않은 한국-캐나다 FTA 발효기간 동안 최대한 FTA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서비스자유화협상(TISA)이 전개되고 있어 한국-캐나다 FTA상의 서비스, 투자 개방 합의도 다자간 시장자유화협상에 의해 희석될 소지가 높아 현재 발효된 FTA의 효과를 발휘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캐나다의 산업생산 및 교역구조를 감안하면 여타 FTA에 비해 비교우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및 문화서비스 분야의 인력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협력의 확대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이 주력하는 경제와 산업의 창의성 증진 분야에서도 공동 협력의 노력을 심화해야 한다.

-

요약: **안 덕 근** 서울대학교 교수

제 2 세션:

기후변화와 에너지 청정기술

이 세션에서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의의와 결과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양국의 에너지 교역관련 이슈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캐나다 측 발표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정부의 낙관대응을 비판하였다. 토론의 많은 시간이 기후변화관련 이슈에 할애되었다.

캐나다 측 발표자들은 기후변화가 향후 21세기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가장 큰 경제적 도전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하며 기후변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후변화난민(climate refugees), 자원 전쟁 등이 중요한 기후변화관련 국제안보 이슈로 대두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 예로, 북극지방의 빙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다행히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① 버락 오바마와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 ②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관련 양자 협약, ③미래는 저 탄소 경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산에 따른 민간 부문의 참여확대 등이 상당히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국내 여론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하여 캐나다의 기술적, 환경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일 샌드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냐는 것과, 둘째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의존형 경제인 캐나다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기술 중심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양국의 주요협력분야로는 청정화된 화석연료(예, cleaner oil sands) 및 청정에너지 기술이 논의 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미국으로 가는 주요 송유관인 Keystone XL의 건설이 미 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캐나다산 원유의 대미수출길이 막힌 상태이며,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원유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캐나다 원유의 주 생산지인 알버타 주(州)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측 발표자는 한국의 에너지 취약성과 에너지 안보, 최근의 에너지 신 산업 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캐나다와의 협

력분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지적하며, 캐나다 측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유연한 계약(take-or-pay, destination clause)을 제안한다면 한국과의 LNG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에너지 저장장치, 연료전지, 지능형 전력망 및 풍력과 태양광을 아우르는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협력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한국시장이 캐나다의 대 일본 중국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신기술 상업화 과정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약 캐나다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한국시장이 가장 좋은 실증단지(test-bed)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는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부문이며 한국이 효과적인 실증단지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어서 저에너지 가격은 이란과 이라크 등의 증산 여력에 따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에너지와 청정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캐나다는 미국시장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다변화 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천연가스 교역과 관련해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LNG를 구매할 수 있으나 캐나다 측의 제도 미비, 고비용 구조 및 경직적인 계약조건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과 캐나다는 청정기술 분야의 협력에 큰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캐나다 기술의 실증시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한국과 캐나다의 직접적인 비교도 있었는데, 전체 공산품에서 차지하는 환경제품의 비중이 한국은 GDP의 약 4%인 반면 캐나다는 단 1%에 불과하여, 캐나다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이 있었다.

-

요약: **정 용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 본부장

제 3 세션:

농업과 식량 안보

제 3 세션에서는 주로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의 한국과 캐나다간의 농산물 교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14년에 한국은 249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4.9억 달러로서, 전체수입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총 57억 달러인데 그 중 캐나다로의 수출은 0.8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한국-캐나다 FTA 발효를 계기로 캐나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크다는데 공감하였다. 캐나다로부터의 주요 수입농산물은 밀, 돼지고기, 카놀라, 보리 등인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한국 소비자들이 캐나다 농산물에 대해 잘 모르므로 캐나다는 한국에서의 판촉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금년 1월부터 한국-캐나다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특기할 만한 교역 증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한국-캐나다 FTA가 한-미 FTA 보다 3년 늦게 발효되었고, 한국-캐나다 FTA에서 돼지고기는 미국보다 관세철폐기간이 3년 길기 때문에 돼지고기 관세감축은 미국보다 6년 정도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최근 캐나다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쇠고기도 금년 2월 광우병(BSE)이 캐나다에서 추가 발병하여 한국이 검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캐나다 참석자는 당분간 수출재개가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Canola Council은 캐나다 내에서 유채 생산자와 가공업체, 유통업체, 수출업자 그리고 정부가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 참가자는 2025년까지 카놀라의 에이커당 생산량을 52부셸(bushel)로 높인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카놀라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한국 식용유 시장의 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도 카놀라의 영양성분이 높다는 점이 알려져 앞으로 사료원료로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카놀라는 유전자재조합(GM)작물이지만 안전하므로 한국이 카놀라에 대해 의무적으로 GM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 측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Maple Leaf라는 회사는 캐나다의 육류 가공식품회사로서 한국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최근 다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좋게 가공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원료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아 가공품 수출에 심혈을 쏟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검역 등 무역기술장벽(TBT)이 높다는 점을 애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FTA는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농업분야에서도 상품무역 이외에

도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익산에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캐나다의 Sunopta와 SMK라는 회사가 투자의향을 밝히고 한국정부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양국간 투자 협력의 좋은 사례이며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 그 동안 많은 나라들과 FTA를 타결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의 국가가 농산물 수출국인 나라들로, 농산물 수입이 계속 늘고 있어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이 금년에도 쌀을 관세화하였고, TPP 가입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농업직불제를 최근 신규 도입하였고, 2014년에 쌀 목표가격도 올렸지만 최근 정부재정이 긴박해지고 있어 앞으로 직불제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식량공급원이 될 수 있기에 양국간 식량안보를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한국은 곡물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23.1%까지 떨어져서, 현재는 국내의 적정한 식량생산기반 유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아세안+3 쌀 비상 재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캐나다는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농업분야에서 매우 혁신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캐나다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캐나다 농산품은 한국-캐나다 FTA를 계기로 한국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점유율을 높일 잠재력이 많다. 또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식품클러스터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의 식품클러스터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Canola Council처럼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여하여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도 한국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다.

현재 양국간 검역 현안 중에 캐나다산 블루베리의 한국 내 수입허용문제는 그 동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금년 중에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BSE 발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문제는 한국-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현재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발생원인 등 한국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답변을 작성 중인데 검역 조치가 자의적인 수입제한 조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

요약: **송 주 호** GS&J Institute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제 2 주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 4 세션: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안보 과제와 한국-캐나다 협력

2014년 출간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서 기후변화, 자연재해나 인재(人災), 난민, 테러,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공격, 인권유린과 같은 새로운 도전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캐나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까운 우방국가들간의 ‘솔직한 대화’(honest dialogue)를 필요로 하며, 양국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해 미국, 중국, 북한, 일본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국제 군축레짐 구축 등에 대하여 협력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미국이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캐나다 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이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inevitable rough edges)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국제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강대국이나 세계시민이라기보다는 ‘지역골목대장’(regional bully)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캐나다는 1990년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NPCSD)에 참여한 것처럼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도 동참해야 하고, 한국 캐나다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공동으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지지와 독려를 토대로 캐나다 정부가 그 동안의 근시안적 ‘통제된 관여’(controlled engagement)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는 한국의 신뢰외교(trustpolitik)를 적극 지지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대북 모자(母子)건강을 위한 (유엔에서의) 캐나다의 선도적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망각’에 빠진 일본의 경우, 또한 캐나다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도전에 대한 해결법 모색을 토대로 한일 간 독도문제해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역사망각’에 빠진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군축레짐과 관련하여 양국은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가야하며, 핵 비확산, 사이버안보, 외기권 문제 등이 협력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한국 주도의 중견국협의체인 MIKTA에 가담해야 한다.

지난 8년간 아태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방위정책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2개 국가에 국한되어 여타 방위정책이나 전략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장관의 언급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헐적으로 이야기해온 것들이 정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3가지 주요 전략으로 항해자유의 보장, 갈등과 강압 억제, 국제법과 규범 준수를 꼽을 수 있는데, 캐나다 역시 이 3가지의 중요성과 유효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전략은 지난 70년 동안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지속을 의미한다.

한국 캐나다 양국협력은 우호적 관계와 아태지역안보의 중요성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방위외교의 경우, 양국은 Mil/Mil 대화, Pol/Mil 대화를 지속해왔는데, 정례화되고, 점점 빈번해진 다자무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대화들은 강화되었다.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캐나다는 몇 년 전부터 5명의 요원을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파견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 합동훈련으로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자격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한미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Key Resolve) 및 포올 이글(Foal Eagle) 등에 군사요원을 파견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군은 아태지역에서 가시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진행될 군의 주요 근대화 작업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해군은 소형구축함(frigate) 근대화로 인해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2018년 근대화 작업이 완수되어도 그 이후 추가 10년 동안도 구축함(destroyers)과 보급선과 같은 핵심역량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0년에 걸쳐 전투기와 해상 순찰기를 새로 바꾸는 작업도 있어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군이 지난 20년간 미국의 항공모함전단(carrier battle groups)의 멤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아태지역에서 꾸준히 그 역할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 여름 Baird 당시 외교장관이 “캐나다는 아시아의 평화, 안보, 안정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고 그렇게 할 위치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아태지역 국가들은 캐나다 새 정부가 지역안보에 의미 있고, 지속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여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기여가 가능해야만 캐나다는 아태지역에서 제대로 된 위치와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핵심협과 미사일시험에 대한 유엔제재에 반발한 북한의 반발로 2009년부터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2015년 2월 이래 5개국은 북한을 상대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에 앞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 및 미국의 입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해온 북한, 중국, 러시아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탐색적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를 북미 양자문제에서 다자적 국제문제로 끌어올려 북한 행동에 따라 지원/유인(incentive)과 처벌/압박(disincentive)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가 타결될 경우 다자안보메커니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참여국들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나 이해관계로 인해 지속적인 6자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고, 이 회담을 자국과 다른 5개국의 대결구도로 믿는 북한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또한 북한의 ‘나쁜 행동’이나 협상파기 등에 대한 중국의 대북압력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것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강대국정치(미-중, 중-일, 중-러, 중-인도)의 복잡한 역학 하에서 한국 스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압박과 유인책은 없으므로 소위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는 주변 강대국과 대북 전략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아시아에 강대국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9세기 강대국정치를 연상시키는 오늘날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1815년 비엔나협정부터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까지 100년간 지속된 유럽의 평화가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 덕분에 가능하였던 것과 같이 유사한 아시아협조체제(Concert of Asia)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소 냉전기부터 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둔을 통해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해온 미국이 철수한다면 지역강국들이 안정적인 국제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채 무제한적 힘겨루기에 빠져 매우 불안정한 다극체제에 빠질 것이므로 미국의 지속적 역할을 지지하는 것이다.

2011년 이래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고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관계를 안정시키는 리더십역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맹강화, 아세안과의 협력확대 및 아태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활발한 지역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미국이 스스로 주도하지 않은 다자협력체에 처음 참가한 사례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대결이 치열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아직까지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은 미국과 다른 동북아국가들이 환경문제나 재난구호와 같은 연성 이슈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쌓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대부분 무력분쟁은 국가간 전쟁이 아닌 국가 내 정치인종분쟁이나 공동체투쟁, 내전 등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고, 많은 경우 분쟁은 계속 재발하여 전후 평화구축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내전의 경우 민간인 살상, 강간 등이 분쟁의 중요한 전략이자 타깃이 되어 복잡한 인도적 위기상황을 야기한다. 2015년 10월 현재 난민, 국내유민 등을 포함하여 강제이주자들이 6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대량난민 유입으로 유럽에서 난민이슈는 가장 심각한 안보이슈가 되고 있다.

자연재해의 빈도나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인도적 도전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경우 가난과 취약성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성과 노인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구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뜻이 같은’ 중견국으로서 정치,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인접하고 있어 전략적 독립성을 갖는 것

이 쉽지 않다. 양국은 다자외교를 지향하며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이고, 소프트파워 전략을 통해 하드파워에서의 열세를 메우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국협력관계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underperformance)이며 무역, 경제, 인적 교류, 에너지 등 기능적 협력에만 머물러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 복잡하고 불확실한 아시아의 안보패러다임, 불안정한 동북아 힘의 역학 등을 미루어볼 때,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1993년 11월 맺은 ‘특별 파트너십’ 지위를 더욱 격상시켜야 하고, 기능적 협력을 뛰어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급변사태, 세계 인간안보레짐 구축 등과 관련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은 개방되고 포괄적인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시아 내 (intra-Asian) 다자메커니즘과 범태평양(trans-Pacific) 다자메커니즘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국은 공동의제와 관점을 개발하고, 향후 방향과 비전을 만들고, 양국 국민들을 계도하고, 양국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압력을 제공하는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한국-캐나다 포럼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지난 포럼들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이슈들을 계속하여 팔로업(follow up) 하고, 양자간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요약: **이 신 화**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교수

제 5 세션: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세계경제의 지배구조는 다극화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온 브레튼 우즈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금융안정의 중심역할을 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등 새로운 기구의 등장으로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벌써 15년째 타결시키지 못하면서 그 존재의의마저 잃어가고 있다. 세계개발금융의 산실인 세계은행(WB)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BRICs국가들이 주도한 신흥개발은행(NDB)의 출범으로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다극화가 세계경제 지배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분열로 귀결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IMF는 1990년대 초의 중남미 외환위기와 1990년대 말의 아시아 외환위기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였다. 구제금융의 제공을 대가로 거시적 긴축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2008년 미국을 진원지로 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뒤이어서 2011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힘을 가진 이들은 IMF의 구제금융에 목을 맬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IMF의 존재감이 미약했던 이유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하는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IMF는 주도적인 역할을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내 주었다. 가장 최근에 합의된 그리스 구제금융에서도 IMF는 부채탕감을 주장하였으나 묵살되었다. IMF는 신흥개도국들로부터도 경원시 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개도국들은 IMF지원을 거부하고 양국간 통화스왑 등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시도하였다. 앞으로 IMF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금융질서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의 재조정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정책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출범한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의 타결이 사실상 불투명해 졌다. 2차대전이후에 세계무역자유화를 주도해 온 WTO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진 것이다. 더욱이 세계금융위기이후에 각국정부가 음성적인 보호무역조치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분쟁해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WTO를 대신하여 무역자유화를 견인하는 기능은 FTA로 대표되는 소수국가간의 특혜적 무역협정으로 넘겨졌다.

FTA도 세계의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WTO 방식에 비해서 무역왜곡을 낳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WTO는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 되면 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다자무역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WTO 부활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TPP 참여 국이며 한국도 조만간 참여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중국이 참여하는 RCEP 참여 국이다. TPP와 RCEP이 타결되면 캐나다와 한국이 주도하여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바람직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신흥개발은행이 출범하였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이 주도하면서 세계은행에 대한 도전 의사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등 신흥개도권의 막대한 인프라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모든 원조를 받는 국가들에게 획일적으로 인권 등의 선진적 가치를 강요하며 지분구조도 신흥개도국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결국 새로운 국제개발금융기구를 만들어서 신흥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구와 새로운 기구가 개발자원조성과 개발정책을 놓고 경쟁하면서 개발자금의 절대규모가 늘어나고 수원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개발정책이 적용되는 윈윈게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반대로 구축효과가 작용하여 개발재원이 두 기구간에 이동할 뿐 그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개발정책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대립, 갈등을 계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냉전체제하에서는 공산이념과 자유이념이 대립하였다. 자유세계의 경제질서는 브레튼우즈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였다. 이제 중국, 인도의 부상으로 세계경제세력판도가 다극화되면서 지배구조 역시 다극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각국이 자국의 금융, 무역정책과 개발정책을 전개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단일가치를 강요받지 않고 재량적 주권을 행사하는 여지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주도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들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G20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직후에 정상회의를 출범시켜서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공히 참여하여 대표성과 정통성을 높였다. 세계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 G20은 그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표성과 정통성을 어느 정도 갖춘 세계경제협력기구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당면한 세계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을 재정비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회복의 강화와 성장세 회복,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불평등의 완화, 지구 온난화 대응 등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G20 이 가장 적합한 논의기구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면서도 그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도에는 중국이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당면한 세계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G20의 위상은 더욱 올라 갈 것이다.

-

요약: **이 경 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제 3 주제

차세대 인적 자본 개발

제 6 세션:

21세기 차세대 협력의 강화: 교육, 문화, 기업 및 과학

한국의 인적 자본 및 혁신에 관한 개관과 한-캐나다 협력의 전망

한국의 교육은 그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저학력 국가 중 하나에서 가장 고학력 국가가 되었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한국의 15세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의 세 분야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리고 인구 당 연구자 수도 최근 10여년 사이에 R&D투자를 많이 하는 10개국 중 최상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지표들은 한국 인적 자본 팽창의 문제점을 가리고 있다. 한국 연구대학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캐나다를 포함한 서구 주요 국가의 연구대학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학교는 학교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답하는 학생들과 자기효용감이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러한 한국 교육에 있어서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의 큰 속도 차이는 학부모와 학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인적 자본의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 투자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소위 '교육거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사교육 부담과 부실 대학으로의 진학이 그것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 캐나다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의 규모는 10,964명이며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유학생의 규모는 881명이다. 또한, Global Internship Program에 따라서 133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을 통하여 초빙된 원어민 교사 5,545명 중에서 캐나다인은 813명이다. 한국 정부는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의 해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한국의 대학들도 개별 대학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많으므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로는 4.3% 수준으로 세계 최고이며 절대 수치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5위권이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논문 수와 특허 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상위인용 논문의 수나 특허의 로열티 수입 등으로 나타나는 고위험 고가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부는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국가의 혁신 역량은 R&D 투자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R&D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얼마나 빨리 사회 내에서 확산되어서 새로운 제품, 더 나아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토론토의 MaRS Discovery District와 워털루의 Communitech를 직접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은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좋은 벤치마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를 창업과 기업이 정신을 고취하는 혁신생태계의 모델로 보고 있지만 실리콘밸리는 한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 벤처 캐피탈의 시장 효율성이나 규모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비하여, 캐나다는 한국의 창업가를 MaRS Discovery District나 Communitech에 초대하여 이들의 국제 창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한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캐나다 창업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캐나다는 교류하면서 혁신생태계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이민사회의 과학/기술교육 및 창업가 정신 고취

최근 인도 이민 1세대들이 연이어 대형 IT 회사의 CEO로 취임하면서, 인도 이민자들의 성공비결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인도에서 태어나 대학교육까지 마친 대형 IT 회사의 CEO로는 구글의 순다피 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나 델라,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등이 있다. IT 외의 분야에서도 인도 출신 경영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펍시코의 인드라누이, 시티그룹의 비크람 팬틸, 매스터카드의 아제이 벵카 등 인도 출신의 성공적인 CEO들이 즐비하다.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는 성취 지향적이면서 겸손한 동양문화, 미래 지향적인 태도, 조용한 리더십, 그리고 영어 능력 등을 꼽는다.

캐나다 내 한국 이민 역사는 50년 정도이며, 이런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주류 사회 진출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들 역시 아시아 문화의 영향으로 겸손하고, 조용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인도 이민자들이 거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민 1세대들의 주류 사회 진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 이민 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민 2세대들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권에서 교육받은 덕택에 언어장벽이 없어 향후 20~30년 간은 한인 이민사회의 활발한 주류 사회 진출이 기대된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1966년 캐나다 이민법 개정으로 본격 시작하였다. 1966년 70명이던 교민사회가 1988년에 약 2만명, 그리고 2011년 현재 12만 4천명 규모의 교민 사회로 성장하였다. 이민이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수의 이민 1.5세 및 2세대들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에 있다. 15세-24세 인구비가 전국적으로는 13%인 반면, 한인 사회의 비율은 21%인 점은 한인사회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객관적인 증거다. 짧은 이민 역사

와 언어 장벽은 한인 사회경제를 교민 사회 내로 국한하는 요소로 작용했고, 이러한 경향은 신규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던 시기에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신규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최근에는 한인사회에 기반한 교민경제가 정체기를 겪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류 사회에 진출하거나,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캐나다 과학기술자협회(INKE)는 젊은 세대들의 과학/기술분야 주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장학금사업, 수학경시대회, 차세대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패기 있는 젊은 과학/공학도들의 기술창업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개최된 창업 경진 대회에는 총 40여팀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친 13개팀이 경합을 벌였으며, 경진 대회 중 창업에 관한 다양한 세션을 구성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INKE와 함께 토론토에서 개최한 캐나다-한국 창업 포럼은 한국 내 창업기업을 초청하여 국제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고, 캐나다 거주 한인 창업가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장이 되었다.

-

요약: **이 주 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치 근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 회장

제 4 주제

장기적 협력관계를 위한 혁신 전략

제 7 세션: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올해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CKFTA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한 관계 발전으로 인해 현재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문턱에 도달했다고 인식했다. 이 세션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전략을 통해 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첫째, 2014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우리는 기업과 단체들이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이에 참가자들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캐나다 측에서는 CKFTA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 협정이 단순히 거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따라서 기존의 무역과 경제적 협의 분야 이외에도 경제적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CKFTA를 통해 창출된 기회들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협정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 리더들이 FTA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국은 현재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열정적인 리더들이 필요하다.

이에 참가자들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한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에너지 무역에 협력했으나,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캐나다는 크게 해상, 북극, 사이버-안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개발원조에 대한 협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동력의 부재로 인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다. 캐나다와 한국은 원조 프로그램을 조직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캐나다가 남북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길 희망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이 한반도의 갈등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캐나다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그 예로 '캐나다의 해'와 '한국의 해'와 같은 행사를 앞으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me 1 Economics, Energy and SME's

Session 1:
Progress and Potential Post-FTA

This session reviewed the recent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 signed in 2014, and explored ways to maximise benefits for both sides. Coming in effect on January 1st 2015, the CKFTA represents Canada's fir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it is too early to reach definitive conclu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al, the forum participants examined the early results of the CKFTA and assessed the state of the Canada-Korea trade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remarks during the session:

- Despite high expectations following the signature of the CKFTA, the immediate outcome of the FTA has been disappointing and underwhelming, with a slight decrease in bilateral trade after it came into effect.
- Korean exports to Canada fell by 6% percent during the first seven months of the year, while imports fell by 21% during the same period. This, however, is not due to problems inherent to the relationship, but rather due to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as shown by the fact that Korean total exports have also declined.
- While there has been a general decline in trade, statistics show that trade in products that are affected by the CKFTA (whose tariffs have been reduced) has declined to a lesser extent than product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agreement. Thus, the CKFTA has had a mitigating effect on the overall decline.
- Canada is playing catch-up against other countries that have signed earlier FTAs with Korea
- There are positiv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cluding in the commodity sector such as seafood, but we need to do more in the value-added sector,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infrastructure and digital economy.
- A rebound in bilateral trade can be expected, but not without further efforts from both sides. Examples include (i) trade promotion efforts through the exchange of trade missions, (ii) more proactive responsive from Korean authorities on long-standing trade irritants, such a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nd issues related to forestry products.
- Korea plans to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soon as possible, which means both countries have a window of 3 to 5 year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KFTA, as the benefits of the latter will be diluted or matched by the TPP and extended to all TPP participants., Consequently, both parties have to consider how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KFTA over the next several years.
- Commerce is much more than mere trade. It includ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joint ventures, commercial partnerships in third markets, and participation in global and regional value chains. Both parties can improve performance in these areas.

-
- Government is a critical partner for trade, and Canada can learn from the Korean government.
 - Canada and Korea both need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CKFTA so that firms explore the opportunities that the agreement offers. In Canada, utilization rates of the FTA are low, due in part to its complexity.
 - The services of Canada's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BDC) and 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EDC) are essential for Canadian companies, but we need all partners to be working together on a strategy and an action plan in sectors where issues have come up.

On the issue of trade and exports at the firm level, the following issues were raised:

- At the firm level, scale and size of businesses are important. There are significant fixed costs to trading, which constitutes a challenge for small business.
- While FTAs can be beneficial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only 10% of Canadian SMEs export. Following-up on the FTA to increase utilization rate is important, because otherwise SMEs are limited due to high fixed costs and other challenges to increasing exports.
- In Canada, studies show that small firms are likely to be creative and dynamic whereas large firms will typically innovate in a more incremental manner, but invest more in R&D.
- We need government policies that favor innovation hubs and result in large firms engaging with smaller firms, as the former are an essential partner for the latter.

We must be aware of the limits of the CKFTA for SMEs. For example, products from Canadian SMEs may encounter difficulties due to competition from China and ASEAN, with which Korea already has FTAs. Conversely, Korean SMEs can have the same problem with the Canadian market, due to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Session 2:

Clean Technologies, Energy and Climate Change

Participants in this session examined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energy sector relationship and business cooperation in clean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goods.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the panelists made the following points:

- Climate change will dominate our thinking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is represents the largest economic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 Not doing anything about climate change could cost up to 25% of global GDP.
- For the security community, threats related to climate change, such as climate refugees and resource wars, rank high.
- We see rapid melting of the Arctic ice cap, which will open up navigation in the Canadian North, and there is evidence that the process is accelerating
- There are positive developments with regards to climate change: 1) the issue has champions such as Barack Obama and Angela Merkel, 2) China and the US governments have agreed to move in the same direction, and 3) there is much deeper commi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in part because businesses realize that the low-carbon economy is the future
-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is widely perceived to have mishandled the climate change issue. As a result, Canadian provinces are now acting on their own on climate, without wai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 The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 for Canada is two-fold: 1) how to make oil sands cleaner 2) how to deal with the move away from fossil fuels to clean technology, as an energy-dependent country.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and market for Korea.
- Global trade in post-fossil fuel goods is going strong, but there is an information barrier. Production and trade of oil is precisely tracked and reported, but it is not the case with environmental goods.
- Low energy prices may persist for several years due to low demand and surplus capacity in Iran and Iraq. If oil price continues to go down, it will affect the new technology sector.
- Smart grid technology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that we need to push for in the future.
- In the next five years, Korea will see a large increase in market shares of environmental goods.

On the potential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Canada and Korea in the energy and clean technology sectors, the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s points:

- Canada needs to diversify its customer base for its oil and gas, by selling more to Korea, China and Japan
- Korea could import large volumes of light natural gas, but the ball is in Canada's court. However, natural gas contributes to global warming.
- There is a strong potential for Canada and Korea to cooperate in the area of "clean technologies", and Korea can be a very good test bed for these technologies.

In the environmental goods sector, Canada can learn from Korea. In Korea, environmental goods represent 4% of GDP, whereas it is only 1% in Canada.

Session 3: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is session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CKFTA and shaping the post-CKFTA relationship based on a shared commitment to food security in both countries. The participants raised the following points:

- Looking at the recent trends,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ncrease in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CKFTA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anada to increase its market share in Korea.
- The CKFTA was signed after Korea' FTA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means that Canadian food businesses are playing catch up to American competitors. Canada is behind on the phase-in of tariff reductions, which constitutes a challenge.
- Market access is only half the battle. There are several other challenges, such as competition in the Korean market (especially from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currency fluctuations, and labour actions in Canada.
- New trade agreements ar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 continued success. Firms need more support and involvement from government.
- Obesity is on the rise in Korea and consumers are looking for healthy options. That is an opportunity for Canadian products, which have a strong reputation for quality, taste and nutritional value.
- Korean agricultural businesses can learn from their Canadian counterparts, given their successes in innovation.
- A crucial factor for increasing trade is a 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based on sound science.

Concerning Canada's trade policy, the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Canada's trade policy needs to be 1) responsive to changes relative to competitiveness, 2) mindful of maintaining a 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 3) steadfast in protecting the preferred access that we enjoy (through NAFTA for example), 4) diligently guarding against trade deals that give our competitors an advantage, and 5) relentless in fighting new technical trade barriers.
- Within the CKFTA, Canada should increase promotional efforts aimed at increasing awareness of Canadian food products in Korea.

Despite the fact that Canada is a major agri-food producing country, it hasn't moved past the basic export model. It should increase foreign investment in the sector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joint ownerships of enterprises.

Theme 2 **Innovative Partnerships in Building
a Better World**

Session 4:
Challenge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Northeast Asia is the locus of several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well as tens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egional powers such as Japan and China. Moreover, the Forum participants noted the deepening “Asian paradox”, in which a low level of cooperation on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coexists with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common interests in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Korea and Canada can cooperate as larger “middle powers” on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ssues. The forum noted that North Korea represents the main security and foreign policy challenge for South Korea. The session examined the security challenges and explored ways forward to alleviate regional tensions. The forum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comments:

- Despite the problems of the Six-Party Talks, there may not be better alternatives at this point. There are three advantages to the Six-Party Talks: 1) they have transferred the nuclear issue to an international forum concerning several parties 2) they can offer a package of incentives 3) they could be transformed in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 One of the main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is the return of rivalries between great powers that tend to compete for the sake of their own interests. This is visible in US-China as well as China-Japan relations.
- There are two schools of thought on what the Asian order should be based on: 1) The “Concert of Asia”: great power relations in the region are reminiscent of great power politics in 19th century Europe, or 2) a US-led Asian order: since a multipolar system is inherently unstable, the USA is necessary to play a stabilizing role in the region.
- Multilateral cooperation is lacking in Asia; the US, through its “rebalance to Asia”, has returned to the region in order to play a leadership role, but there is no cooperation mechanism.
- Canada has not laid down a clear defense policy or vision for the East Asian region.

On Canada-Korea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following remarks were made:

- As larger middle powers, Canada and Korea have similar capacities and interests across a variety of fields. They will have to choose carefully where they will work together.
- At the moment, Canada is absent and not acting in a way that is commensurate with its weight as a G7 member, or its stake in the stability of the region. It needs to work to regain its influence regionally, which will require Korea’s patience and support.

-
- As Canada and Korea are both allies of the United States, they can work with the United States to help clarify it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context of deepening rivalry.
 - Canada should more actively support Korea's Trustpolitik with North Korea.
 - China has acted recently in an aggressive manner, for instance in the South China Sea. Can Korea and Canada work together to encourage China to become a responsible great power?
 - Canada used to be leader in Track 2 diplomacy and has to regain its position.
 - Given that Canada has regular military dialogue with Japan, it could attempt to help Japan and Korea overcome their differences.
 - Canada and Korea should promot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crease state donations. However, humanitarian assistance in some cases can contribute to prolonging war and inadvertently increase uncertainty on the field.
 - Canada and Korea should strengthen global peace keeping and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In that regard, Korea can learn from Canada o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issues, given its experience.
 - Canada is well positioned to play a greater role in the region and increase cooperation with Korea. The question that remains is whether or not the Canadian government will have an interest in doing so.

Participants in the session also identified global issues that are of concern for middle powers such as Korea and Canada, with room for possible cooperation:

- Most wars are now civil conflicts, but a third still have international or regional implications
- Th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is a perennial tragedy
-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in frequency and magnitude

The forum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 Canada-Korea needs to promote their new "Strategic Partnership" (which succeeds their special partnership launched in 1993), but go beyond functional cooperation
- We have to follow-up on the Forum's 2014 recommendation and establish the mechanism of annual "2 Plus 2" meetings between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both countries

The Canada-Korea academic community has a role to play in identifying a common agenda, envisioning a future path, enlightening the public, and giving necessary support for decision-makers.

Session 5:

Innovations in Global Governance

Participants in this session discussed ways in which Canada and Korea can join forces to help reduce gaps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and internet governance. In regard to economic governance and the rol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the following points were brought forward:

- We are witnessing an increase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rrangements instead of multilateral agreements under the WTO. This represents a serious challenge to global economic governance as far as trade liberalization is concerned.
- The IMF has been at the centre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for decades, but is now losing its predominant role in favour of the G20.
- The G20 should try to broaden its focus. The G20 was designed as a narrowly-defined economic and financial forum, mainly dealing with shorter term issues. It should expand its time horizon. Issues related to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trade should be brought to the forefront of the G20 agenda.
- The role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should be expanded in the area of sovereign debt crisis management and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 Korea should join the TPP negotiations as early as possible. It should have joined in the early stage in order to influence the rule-making process. Canada should give Korea its active support to join in due course.
- Korea should facilitate regional trade negotiations in Asia, including completing a Korea-Japan FTA and promo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Korea can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to accelerate progress.
- Canada and Korea's interests are fully aligned with regard to the G20, where both have provided significant leadership.

Regarding possible areas for Canada-Korea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governance, the panelists ma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Canada and Korea can work together to ensure the cohesiveness of the emerging global economic order and prevent it from becoming too fragmented.
- Canada and Korea should raise their voices and urge the US Congress to implement reforms of the IMF and the World Bank.

-
- Canada and Korea should work to ensure that the governance of the newly-establish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legitimate, efficient and transparent.
 - Canada and Korea could conduct joint studies on two issues: 1) policy directions for the liberalization process of financial markets 2) development of industrial and development policies.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following remarks were made:

- Canada's and Korea's interests align, as liberal democracies pushing their high-tech industries to enter the global market, thus leaving them exposed to cyber-espionage. They have both been victims of cyber-attacks, with major economic loss and impacts on GDP and national security.
- The rules of governance for internet are insufficient and opaque. Both countries thus need to work on jurisdiction and clarify rules that are in their interest.
- There are governance gaps with regards to rules of attribution. The current rules are dated and unclear.
- Canada and Korea can work together on jurisdiction. What is the core responsibility of states?
- We need to articulate a normative framework in which cyber-espionage is clearly illegal and we need to raise the costs for perpetrators of these crimes.

Theme 3 **Engaging Youth and Next Generation Leaders**

Session 6:

Forging 21st Century Ties-Education, Culture, Business and Science

This session focused on youth engagement and partnerships that would appeal to youth and younger professionals and leaders in both countries. The forum participants raised several issu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in Korea:

- There is too much focus on test scores in Korea. The quantitative success of Korean education masks qualitative problems. Korean students study excessive hours, which has an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ountry therefore needs a different approach to pedagogy.
- The quality of research universities in Korea is improving, but it is still lagging behind Canadian and American universities.
- Citations of Korean papers are increasing, which is one indicator of quality of research. However, citation count is a skewed metric, and is insufficient by itself to assess the quality of research. We can also use number of patents, volume of work, etc.

On engaging youth and building leadership for the future in both countries, the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remarks:

- One of the reasons that Canadians do little business outside of the Canadian and US markets is that international links are not being built at the youth level. Only 3% of Canadian undergraduate students go abroad during their studies. Comparatively, 20% of Australians study abroad, as do 35% of Germans and 12% of Americans. In order to be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we need to build more linkages among young Canadians and other countries.
- Korea must do more to open its education system to foreign students.
- As the third largest cohort of foreign students in Canada, Korean students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o the Canadian economy, which provides a great incentive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 There should be increased efforts in Canada to raise awareness of Korea as a top destination for higher education.
- There is room for more active collaborations and partnerships between Canadian and Korean universities

-
- We should increase cultural exchanges. Too few young Canadians are interested in going to Korea. We can do a better at fostering interest in Korea through food, sports like Tae-kwon-do, language, etc.
 - In order to build leadership in the tech sector, Korea can learn from initiatives such as Communitel and MaRS, especially the way in which business and academia work together horizontally.

Canada can provide a launching pad to young Korean entrepreneurs wanting to enter the US market.

Theme 4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Relations**

Session 7:
Imaging the Future: New Areas of Cooperation

The Forum recognized that Canada and Korea are on threshold of a new stage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KFTA and the elevation of the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The objective of this session was to identify new areas of cooperation that align with Korean and Canadian interests and innovative strategies to elevate their relationship.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elicited certain questions from participants:

- In concrete terms, how do we implement the “strategic partnership” that was officially announced in 2014?
- How do we get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to start thinking about our relationship strategically and long-term?
- In what sectors should we be more active?

The panellists raised the following points:

- We are on the threshold of a new stag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KFTA and the elevation of the relationship to “strategic partnership”.
- The relationship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on the Canadian side. The relationship is still too transactional, which is a problem for many of Canada’s foreign relationships. We need to think about additional strategic areas where collaboration can make sense, aside from trade and economy, yet which underpins and enriches the essential economic dimension.
- We cannot be complacent. We have to energize our business communities and encourage them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created by CKFTA. The success of the agreement will depend on our business leaders walking through the FTA door.
- We need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engaging leaders that are ready to champion and carry the relationship.

On possible areas of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the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remarks:

- Korea and Canada have long cooperated on energy trade. Both countries need to focus on new areas of cooperation.
- We should focus on three broad areas for collaboration: naval collaboration, Arctic collaboration, and cyber-security.

-
- Korea has been asking for Canada to collaborate on development assistance. Despite Korea's interest, we have not responded enough, due in part to a lack of political drive. Canada and Korea should think about co-ordinating their donor programs and leverage each other's experience. There is already some cooperation on development assistance, but it should be increased.
 - Korea would like Canada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for stability. Canada must understand that it has the capacity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Canada should collaborate on public diplomacy. For instance, in the next few years, there could be a "Year of Canada" in Korea and a "Year of Korea" in Canada.

3. 참석자 명단

List of Participants

KOREAN PARTICIPANTS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HEO Hong Goo	President,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Kitchener
JO Daeshik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JUNG Yonghun	Senior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ANG Eunho	Deputy Director of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KANG Jeong-sik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KIM Byungkwon	Director General of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KIM DoHoo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KIM Myung Ja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LEE Kyung Tae	Co-Chairman, Committee for Domestic Affairs of the Trade Treaties of Korea;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LEE Sang Soo	Deputy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LEE Shin-wha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E Yongpil	Trade Commissioner, Korean Embassy in Canada
OH You Rim	Analyst, Korean Consulate in Toronto
PARK Joon-woo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
SONG Joo-Ho	Senior Economist, GS&J Institute
YIM Sung-Joon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

CANADIAN PARTICIPANTS

Celine BAK	CIGI Senior Fellow; President, Analytica Advisors
Eugene BEAULIEU	Direct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chool of Public Policy at University of Calgary
Derek BURNEY	Senior Strategic Advisor, Norton Rose Fulbright Canada
Ailish CAMPBELL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Sonny CHO	President and CEO, Canada Korea Business Council
Leonard J.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Distinguished Fellow, CIGI; Strategic Adviser,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mer Deputy 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Marius GRINUIS	Former Canad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ellow at the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
Fen HAMPSON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Global Security & Politics Program, CIGI; Chancellor's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
Benoit HARDY-CHARTRAND	Research Associate, CIGI
Dan HERMAN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for Digit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erformance; PhD Candidate at the Balsillie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BSIA)
Chi-Guhn LEE	President; Associate Professor,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 (AKCSE); University of Toronto
Domenico LOMBARDI	Director, Global Economy Program, CIGI
Yonah MARTIN	Deputy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Co-Chair)
Rory McALPINE	Senior Vice-President, Government & Industry Relations, Maple Leaf Foods
Tuuli McCULLY	Senior International Economicst - Asia/Pacific, Scotiabank
Rick McGAHEY	Vice President, Programs,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INET)
Rohinton MEDHORA	President, CIGI
Patti MILLIER	President and CEO, Canola Council of Canada

Tina PARK	Ph.D Candidate, University of Toronto
Drew ROBERTSON	Vice-Admiral (ret'd)
David RUNNALLS	Distinguished Fellow, CIGI
Aaron SHULL	Chief of Staff and General Counsel, CIGI
Hugh STEPHENS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ice Chair, Canadian Committee 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ECC)
Stephen TOOPE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Rene VAN ACKER	Associate Dean, External Relations, Ontario Agricultural College, University of Guelph
Wido WESTBROEK	VP Sales and Marketing, Hydrogenics Corporation

GOVERNMENT OF CANADA OBSERVERS

Christopher BURTON	Director, Northeast Asia Division (OPA),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Eric BJORNSON	Senior Policy Advisor, Directorate of Strategic Analysis, Assistant Deputy Minister (Policy), National Defense
Susan GREGSON	Assistant Deputy Minister, Asia Pacific,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Chad HYDE	Trade Commissioner (Korea) / North East Asia Division,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Nigel NEALE	Deputy Director, Trade Agreements Secretariat,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Frédéric SEPPEY	Acting Assistant Deputy Minister, Market and Industry Services Branch,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gri-Food
James TROTTIER	Political/Economic Counsellor, Head of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Affairs, Embassy of Canada in South Korea

4. 프로그램 Program

THURSDAY, SEPTEMBER 17, 2015

5:00 - 5:30 p.m.	Registration
5:30 - 6:00 p.m.	Welcome Reception
6:00 - 8:30 p.m.	Opening Dinner and Keynote
6:10 p.m.	Welcome Remarks Rohinton Medhora, <i>President,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i>
6:15 p.m.	Greetings from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Honourable Yonah Martin, <i>Deputy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 Canada-Korea Inter-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Co-Chair)</i>
6:20 p.m.	Greetings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His Excellency Jo Dae-Shik, <i>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i>
6:40 p.m.	Remarks YIM Sung-Joon, <i>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i>
6:45 p.m.	Introduction of Guest Speaker Len Edwards, <i>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i>
6:50 p.m.	Keynote Address: John Knubley, <i>Deputy Minister, Industry Canada</i>
7:50 p.m.	Thank You to Guest: JUNG Ku-Hyun, <i>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i>

FRIDAY, SEPTEMBER 18, 2015

7:45 - 8:00 a.m.	Registration
8:00 - 8:30 a.m.	Opening of the Forum Len Edwards, <i>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Distinguished Fellow, CIGI; Strategic Adviser,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i> YIM Sung-Joon, <i>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former President, The Korea Foundation</i>

Theme One: Economics, Energy and SME's

8:30 - 10:00 a.m.

Session One
Progress and Potential Post-FTA

Session Chair:

Hugh Stephens, *Senior Fellow,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Vice Chair, Canadian Committee o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ECC)

Panel Members:

AHN Dukgue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Eugene Beaulieu, *Professor,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gary*

Ailish Campbell, *Vice President, Policy, International and Fiscal Issues,*
Canadian Council of Chief Executives

KIM Dohoon,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10:00 - 10:15 a.m.

Coffee Break

10:15 - 11:30 a.m.

Session Two
Clean Technologies, Energy and Climate Change

Session Chair:

KIM Myung-ja, *President, Green Korea 21 Forum;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Panel Members:

Celine Bak, *CIGI Senior Fellow; President of Analytica Advisors*

David Runnalls, *CIGI Distinguished Fellow*

JUNG Yonghun, *Senior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1:30 - 12:45 p.m.

Session Thre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Session Chair:

Rene Van Acker, *Associate Dean, External Relations, Ontario Agricultural College,*
University of Guelph

Panel Members:

Rory McAlpine, *Senior Vice-President, Government & Industry Relations,*
Maple Leaf Foods Inc.

Patti Miller, *President, Canola Council of Canada*

SONG Juho, *Senior Economist, GS&J Institute*

1:00 - 2:30 p.m.	Lunch and Guest Speakers
1:30 p.m.	Derek Burney, <i>Senior Strategic Advisor, Norton Rose Fulbright</i> “Canada’s Election and Implications for Canadian Foreign Policy”
2:00 p.m.	PARK Joonwoo, <i>Chairman, the Sejong Institute;</i> <i>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i>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in Korea”

Theme Two: Innovative Partnerships in Building a Better World

2:30 - 3:45 p.m.	Session Four Challenge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Session Chair: PARK Joonwoo, <i>Chairman, the Sejong Institute;</i> <i>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olitical Affairs</i> Panel Members: Marius Grinius, <i>Former Canad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i> <i>Fellow at the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i> KIM Sung-han, <i>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i> LEE Shin-wha, <i>Professor, Korea University</i> Vice-Admiral (ret’d) Drew Robertson
3:45 - 4:00 p.m.	Coffee Break
4:00 - 5:15 p.m.	Session Five Innovations in Global Governance Session Chair: Rohinton Medhora, <i>President, CIGI</i> Panel Members: LEE Kyung Tae, <i>Co-Chairman, Committee for Domestic Affairs of</i> <i>the Trade Treaties of Korea;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of</i> <i>International Economic Policy</i> Domenico Lombardi, <i>Director, Global Economy Program, CIGI</i> Aaron Shull, <i>Chief of Staff and General Counsel, CIGI</i>
5:15 - 6:00 p.m.	Special Keynote Address: Mariana Mazzucato, <i>Professor, Economics of Innovation,</i> <i>Science Policy Research Unit (SPRU), University of Sussex</i>

6:15 p.m.	Shuttle from Langdon Hall to CIGI
6:45 - 7:15 p.m.	Reception
7:15 - 9:15 p.m.	Dinner & Guest Speakers
7:25 p.m.	Welcome Remarks: Rohinton Medhora, <i>CIGI President</i>
7:50 p.m.	Guest Speakers: Adam Belsher, <i>CEO, Magnet Forensics</i> J. Paul Haynes, <i>CEO, eSentire</i>
8:25 p.m.	Thank You to Speakers: YIM Sung-Joon, <i>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i>
9:15pm	Shuttle from CIGI to Langdon Hall

SATURDAY, SEPTEMBER 19, 2015

Theme Three: Engaging Youth and Next Generation Leaders

8:30 - 10:00 a.m.	Session Six Forging 21st Century Ties - Education, Culture, Business and Science
	Session Chair: JUNG Ku-Hyun, <i>President,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i>
	Panel Members: LEE Chi-Guhn, <i>President, Association of Korean-Canadian Scientists and Engineers</i> LEE Ju-Ho, <i>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i>
10:00 - 10:15 a.m.	Coffee Break

Theme Four: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Relations

10:15 - 11:30 a.m.

Session Seven

Imaging the Future: New Areas of Cooperation

Session Chair:

Fen Hampson, *Distinguished Fellow & Director, Global Security & Politics Program, CIGI; Chancellor's Professor, Carleton University*

Panel Members:

Len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Stephen Toope,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1:30 - 11:50 a.m.

Closing Remarks

YIM Sung-Joon, *Kore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Leonard J. Edwards, *Canadian Co-chair, Canada Korea Forum*

12:30 p.m.

Depart Langdon Hall via tour bus (boxed lunches served on bus)
for afternoon & evening social program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우.110-160) 서울시 종로구 종로51 종로타워빌딩 22층

Tel. 82-2-2198-3030

Fax. 82-2-2198-3032

E-mail: seoulforum@hotmail.com